북한매체 보도 동향

1. 농업정책

□ 농업정책

○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곡식을 정성껏 가꾸자 (로동신문 6.10)

- 농업부문 전체 일군과 근로자들은 영농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함.
- 김매기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야 함. 농촌들에서는 포전별, 날짜별 김매기 계획을 바로세우고 노력과 농기계를 총동원하여야 함. 기계김매기, 손김매기, 살초제이용, 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김잡이를 잘 배합하여야 함. 염주군 룡북, 내중협동농장, 만경대구역 만경대남새전문농장을 비롯한 많은 농장들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우렁이에 의한 김잡이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함.
- 모든 분조, 작업반에서는 김을 열흘에 한번 이상 매야 하며 강냉이밭후치질을 깊숙이 하고 포기마다 북을 많이 주어 김이 돋아나지 못하게 하여야 함.
- 농촌들에서는 품종별 특성과 모를 낸 날짜, 곡식의 생육상태와 기상기후조건을 고려하여 각종비료를 주는 시기와 양을 정확히 규정하고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함.
- 지난해 후민산염과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를 농작물잎에 분무하는 방법으로 해비침률이 낮은 조건을 극복한 강원도 농촌들의 경험을 본받아 어디서나 유기질비료이용을 실정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함.
- 관수, 배수체계를 기술적 요구대로 세워야 함. 농촌에서는 일기조건과 곡식의 생육상태를 따져가며 앞선 관수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한포기라도 가뭄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함. 배수양수기 준비를 갖추고 강하천, 물길제방과 구조물을 제때에 보수정비하여 큰물피해를 막아야 함.

○ 농촌을 더욱 힘있게 지원 (로동신문 6.16)

- 상업성에서 농촌지원사업을 잘하고 있음.
- 성의 책임일군들은 농장원들에게 올해농사가 갖는 의의와 중요성을 해설해주면서 모를 심어나갔음.
- 성 아랫단위 일군과 종업원들은 많은 영농물자와 지원물자들을 마련해서 곡산군 계림협동농장에 나감. 또한 영농물자들을 마련하여 대동군 오금협동농장에 보내주었을 뿐 아니라 화물자동차를 앞세우고 농장에 나가 모 운반을 적극 도와주었음.

- 성에서는 6.1국제아동절과 조선소년단창립절을 맞으며 많은 물자를 마련하여 농장들의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들에 보내주었음.
- 외교단사업총국의 일군과 종업원들은 최근년간 수천 점의 중소농기구와 트렉터부속품, 수십대의 이동식분무기 등 영농물자를 많이 마련함. 그 뿐만이 아니라 작업반들의 탈곡장을 꾸려주고 학생들의 통학길에 다리를 놓아준 것을 비롯하여 농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함.

○ 농업생산에 부림소를 적극 이용 (로동신문 6.27)

- 김정일은 “협동농장들에서 부림소관리를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함.
- 군당위원회에서는 부림소관리를 잘하는 것이 올해농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게 하는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함.
- 군일군들은 군자체의 힘으로 여러가지 약을 만들어 수의방역사업에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송아지생산에 인공수정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음.
- 군적으로 논밭갈이와 써레질, 후치질을 비롯한 영농작업에 부림소들을 적극 이용한 결과 많은 연유와 노력을 절약할 수 있었음.
- 봉천군 송정협동농장 제5작업반에서 부림소들의 관리와 이용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였음. 부림소들의 관리와 이용을 과학기술적으로 한 결과 작업반의 유기질비료생산은 훨씬 늘어났으며 영농작업 과제를 앞당겨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 신계군 대정협동농장 제8작업반에서도 부림소를 많이 길러 유기질비료생산을 늘였음.
- 운흥군 심포협동농장 제3작업반과 와우도구역 신령목화전문협동농장 청년작업반, 성천군 온정농장 제7작업반에서도 부림소를 많이 길러 당면한 영농작업들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과학영농

○ 성장촉진제를 적극 받아들여 (로동신문 6.13)

- 와우도구역 대남남새전문협동농장 제5작업반에서는 올해 남새농사에 성장촉진제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음.
- 지난해 작업반은 모판단계에서 성장촉진제를 이용하였더니 뿌리 발육이 좋아져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배추모를 튼튼히 기를 수 있었음.
- 영양상태가 약한 배추모에는 후민산소다를 흙보산비료와 섞어 주었더니 불과 며칠만에 그 효과가 나타났음.
- 여러 가지 성장촉진제를 받아들인 결과 모판단계에서는 물론 포전에서도 남새모생육

조건이 좋아져 수확고가 높았다고 함.

- 이들은 지난해의 경험을 살려 모든 분조들에서 남새비배관리에 여러 가지 성장촉진제를 받아들이도록 하였음.
- 작업반에서는 우선 성장촉진제를 잎덧비료[1]로 분무하게 하였음. 해비침률이 높을 때 분무하면 빨리 마르기 때문에 성장촉진제를 날씨가 흐린 날 또는 아침시간과 저녁시간에 분무하도록 한 것은 잘한 일임.

○ 은을 내는 새 제품생산기지 (로동신문 6.13)

- 농업과학원 농업화학화연구소에 새 제품생산기지가 성과를 내기 시작하였음.
- 연구소에서 개발한 지하해충구제용 강냉이종자피복제가 생산되었음. 이것은 새 제품생산기지의 첫 제품으로서 올해 영농기지전에 현장들에 공급되었음. 그리하여 국가에 많은 이익을 주었음.
-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연구소에서는 새 제품생산기지에서 보다 갱신된 형태의 강냉이종자피복제에 대한 시험생산과 논벼용미량혼합살초제 생산공정에 대한 시운전 및 정상운영을 위한 준비도 끝냈음.
- 지금 농업화학화연구소에서는 원료, 자재가 보장되는데 맞게 새 제품생산기지운영을 보다 활성화해나가기 위한 빈틈없는 과학기술적 준비를 갖추고 있음.

○ 환경보호에 좋은 비티생물농약 (로동신문 6.13)

- 농업과학원 식물보호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이 환경보호에 좋은 비티생물농약의 새로운 공업적 생산방법을 확립하였음.
- 비티생물농약은 비티세균을 이용하여 만든 미생물살충제로서 강냉이대벌레, 늦벌레, 배추청벌레, 과일나무잎말이 벌레류를 비롯한 농작물해충들과 원림 및 산림해충 등을 안전하게 구제할 수 있는 무공해농약임.
- 연구자료에 의하면 과학자들이 개발한 비티생물농약을 500~1,000배 희석하여 사용하면 농작물과 산림에 피해를 주는 여러 가지 해충들을 매우 높은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고 함.
- 과학자들은 농약생산현장에 나가 미생물배양공정을 활성화하고 비티생물농약생산에 합리적인 주기식 다단배양기술을 연구도입함으로써 농약의 유효성분생산량을 3배이상 증가시켰음.
- 이에 기초하여 최근 6~7년 동안 수천정보에 해당한 양의 비티생물농약을 생산하여 평양시와 황해북도를 비롯한 여러 도들에서 농작물과 산림의 해충을 구제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음.

1) 잎덧거름, 비료를 푼 물을 잎과 줄기에 뿌려서 식물이 빨아들이게 하는 덧거름.

○ 앞선 농사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로동신문 6.20)

- 평원군 삼봉협동농장에서 앞선 농사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농장의 일군들이 알곡증산을 위해 찾은 방도가 성형알모를 받아들여 정보당 알곡 수확고를 높이고 노력, 비닐박막, 비료등을 절약한 것임.
- 관리위원회에서는 성형알모에 의한 모내기 비중을 지난해보다 2배로 높이고 농장에서는 속성모도 적극 받아들임. 결국 농장에서는 거의 모든 논면적에 앞선 과학농법을 받아들여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고 있음.

2. 벼농사

□ 모내기

○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끝냈다 (로동신문 6.2)

- 평양시안의 농업부문 일군과 근로자들이 짧은 기간에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5월말 현재 시안의 모든 농장에서 앞그루작물면적을 제외한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끝내었음.
- 만경대구역과 사동구역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튼튼한 모를 길러내는데 힘을 넣으면서 기계화비중을 높여 짧은 기간에 모내기를 제철에 끝내었음.
- 강남군안의 일군들은 알곡생산을 위해 모내기시작부터 매일 실적을 올리었음.
- 군당위원회일군들을 비롯한 군안의 일군들은 한 개 농장씩 맡고 내려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모내기를 훨씬 앞당겨 끝내는데 큰 기여를 하였음.
- 영진협동농장의 일군과 농장원은 모내기를 제일먼저 끝내고 다른 농장의 모내기를 적극 도와주어 군적인 모내기 기일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였음.
- 강동군과 여러 축산전문협동농장에서도 모내기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제 기일에 모내기를 질적으로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 평양시안의 모든 농장들에서는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짧은 기일에 성과적으로 끝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2단계 모내기도 제 기일에 끝낼 목표 밑에 노력을 하고 있음.

○ 모판관리를 기술적요구대로 (로동신문 6.2)

- 은률군 송관협동농장의 일군과 농장원들이 모판관리에 계속 힘을 넣고 있음.
- 기사장과 작업반기술원들은 씨뿌린 날짜와 볏모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며 모판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음.

- 관리공들 모두가 모판관리일지에 매일 그 정형을 정확히 기록하면서 볏모종류별, 품정별 특성에 맞게 모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 제2작업반의 모판관리공들은 매일 볏모들의 생육상태를 구체적으로 관찰하면서 기술적 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있음.
- 제5작업반의 모판관리공들도 볏모들이 바닷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맞게 모판관리를 기술적요구대로 하고 있으며 다른 작업반들에서도 온도와 습도보장, 덧 비료주기 등 모판관리를 기술적 요구대로 하면서 실한 볏모를 키워내고 있음.

○ 해발고와 일정계획 (로동신문 6.2)

- 동림군에서 해당지역의 해발고에 따라 모내기일정계획을 세웠음.
- 군에서는 산성협동농장의 지난해농사경험으로부터 포전의 해발고에 따라 중간늦종, 중간종순서로 모내기 일정계획을 세우도록 함.
- 군일군들은 해발고가 6~30m되는 포전들에는 중간 늦종을 배치하되 모내기를 먼저 시작하여 9일 동안에 끝낼 수 있게 일정계획을 세우도록 하였음.
- 해발고가 30~84m되는 포전들에는 중간종으로 모내기를 하도록 하였음.
- 군일군들은 룡연, 인풍협동농장을 비롯한 일부농장들에서 모내기를 해안지대 농장들보다 늦게 시작하여 7일 동안에 해내도록 하였음. 이 농장포전들은 대체로 해발고가 85~150m인 해안지대보다 평균기온이 낮은데 이 사실을 토대로 포전들의 해발고와 지력상태에 따라 일정계획을 세우고 중간종, 올종(조생종)으로 모내기를 하도록 하였음.
- 일군들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청강, 룡상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전반적 농장들에서 올해 모내기를 최적기에 성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음.

○ 최적기보장에서 틀어쥔 고리 (로동신문 6.4)

- 함주군일군들은 지난해 농사경험과 교훈을 분석하면서 냉해가 심하고 태풍이 자주불어 가을이 빨리 오는 동해안지방에서 모내기를 최적기에 끝낸 포전과 그렇지 못한 포전들에서 정보당 알곡수확고차이가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됨.
- 군일군들은 이 점을 중시하고 농장들에서 씨뿌리기를 지난해보다 한주일이상 앞당겨 진행하고 튼튼한 모를 길러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게 했음.
- 군일군들이 다음으로 중시한 것은 모내기에서 농기계들이 가동률을 훨씬 높이도록 한 것임. 군일군은 모내기시작전까지 트랙터와 모내는 기계를 비롯한 농기계수리정비를 완전히 끝내게 함.
- 모내기가 시작되자 군일군들은 이동수리역량을 꾸리고 현장에서 농기계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제때에 하여 가동률을 높이게 하였음.

- 모든 농장들에서 써레치기를 앞세우고 모보장을 하면서 모내는 기계의 가동률을 높여 매일 계획을 수행한 결과 동봉, 연포, 동암, 고양, 조양협동농장들에서 5월말까지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먼저 끝냈음.

○ 각지 농촌들에서 (로동신문 6.16)

- 재령군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이 앞그루작물수확을 위한 농기계수리정비를 기본적으로 해낸 기세로 김매기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 열흘에 한 번씩 김을 매려니 일손이 모자랐지만 삼지강, 강교, 북지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손을 놓지 않음.
- 논두벌농사에서 모범을 보인 연안군 읍협동농장을 비롯한 연백벌안의 일군과 농업근로자도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관철하여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해 탈곡기와 트랙터수리정비를 마감단계에서 하고 있음.
- 숙천군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은 김매기를 앞세우면서 비료주기를 하고 있음.
- 룡천군 신암,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의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이 앞그루작물수확과 뒷그루작물심기준비를 하면서 김매기 성과를 올리고 있음.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의 일군과 농업근로자도 김매기와 비료주기, 논물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가고 있음.
- 함주군, 정평군, 안변군을 비롯한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일군과 농업근로자들도 농작물의 생육상태에 맞게 후민산염과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를 시비하면서 농작물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하고 있음.

❑ 두벌농사

○ 두벌농사를 실속있게 하자 (로동신문 6.20)

- 지금 농업부문앞에는 농작물가꾸기에 계속 노력하는 동시에 앞그루작물 가을걷이와 뒷그루작물심기를 최적기에 끝내야 할 과업이 있음.
- 밀, 보리의 가을걷이계획을 실정에 맞게 세우고 무조건 수행하여야 함. 특히 뒷그루작물심기에 지장이 없도록 가을걷이 적기를 바로 정해야 함.
- 같은 지역에서도 씨뿌린 날짜와 품종에 따라 여무는 시기가 다른 조건을 고려하여 낟알물기가 20~25%정도 되면 제때에 걷어 들여야 함.
- 농기계 이용률을 높여 가을한 밀, 보리를 제대에 실어들이며 털어낸 낟알을 잘 말려서 보관하여야 함.
- 앞그루감자가을걷이를 적기에 끝내야 하며 앞그루 작물을 수확하는 즉시 뒷그루작물심기를 해야 함.
- 뒷그루로 큰모를 내는데 맞게 포전별 토양특성을 따져가며 평당포기수와 포기당 대

수를 정확히 보장하여야 함.

3. 감자농사

❑ 감자농사

○ 중소농기구준비를 착실히 (로동신문 6.15)

- 온천군 송현협동농장에서 앞그루 감자가을걷이 준비를 하고 있음.
- 농장의 일군과 농장원들이 특히 힘을 넣은 것은 가을걷이에 필요한 중소농기구들을 빈틈없이 준비하는 사업이었음.
- 모든 작업반에서 필요한 중소농기구준비에 품을 들이며 제11작업반이 앞장서서 작업반의 농장원들이 호미를 비롯한 소농기구들을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준비해놓고 있음.
- 농장원들의 노력으로 앞그루감자가을걷이 준비는 마감단계에서 있음.

4. 축 산

❑ 축산동향

○ 집짐승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로동신문 6.18)

- 양덕군 은하협동농장에서 풀먹는 집짐승기르기를 잘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 특히 축산작업반원들이 풀먹는 집짐승들의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고 있음.
- 축산작업반 반장 박춘영은 조리실, 분쇄실 등을 꾸려놓고 여러 개의 먹이저장탱크를 만들어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과 함께 먹이가공을 맡은 작업반원들이 집짐승들의 영양관리에 깊은 관심을 돌리게 하고 있음.
- 이곳 작업반원들은 풀먹는집짐승들의 새끼낳이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새끼 생산을 늘리면서 풀판을 이용하여 염소와 양들의 방목을 잘해나가고 있음.
- 작업반에서는 계절적 조건에 맞게 수의방역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 있음.

○ 먹이풀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자 (로동신문 6.25)

- 김정일은 “풀먹는집짐승을 많이 기르자면 풀판조성을 잘하여야 한다”고 말함.
- 김매기를 잘하지 못하면 먹이풀의 초기생육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으며 정보당 생산량을 늘리는데 적지 않은 지장을 받게 됨.
- 인민군부대들과 모든 돌격대들에서는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속도와 질을 모두 보장하면서 먹이풀판의 3회 김매기를 빨리 끝내야 함.

- 먹이풀의 영양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돌려야 하며 덧비료주기를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해야함.
- 병해충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함. 자료에 의하면 세포등판의 자연지리적조건에서는 진디물과 같은 병해충들이 보통 6월부터 발생하므로 모든 단위에서는 그 피해막이사업에 보다 큰 관심을 돌려야 함.

5. 농업기반

❑ 물길공사, 저수지, 물보장 사업

○ 개천-태성호, 백마-철산, 미루벌물길 준공 후 연 백수십만정보의 논밭에 100여억m^3의 관개용수 보장 (로동신문 6.4)

- 2002년 10월 처음으로 개천-태성호물길이 대규모자연흐름식관개체계의 본보기로 건설된데 이어 2005년 10월에는 백마-철산물길이, 2009년 9월에는 미루벌물길이 완공됨으로써 연 2,000여리 자연흐름식 물길이 형성되었음.
- 개천-태성호 물길건설은 첫 대규모 자연흐름식 물길로 지난 10여 년 동안 수십억 m^3의 물이 흘러 연 100만여 정보의 논밭에 관수를 성공적으로 보장함.
- 개천-태성호의 관개면적은 관개건설역사상 가장 큼. 평안남도와 평양시, 남포시의 10여개 시, 군, 구역의 10만 정보의 논밭에 물을 넉넉히 보장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물문제가 원만히 해결됨으로써 농사를 안전하게 짓고 있음.
- 개천-태성호물길의 말단지구인 남포시안의 농촌들이 최근 연간 알곡생산계획수행에서 앞장선 것을 비롯하여 많은 농촌에서 그전보다 알곡을 증수하였음.
- 두 번째로 건설된 백마-철산물길로 지난 7년 동안에 30여 억 m^3의 물을 연 수십만 정보의 논밭에 관수하였음. 해마다 3월말부터 9월말까지 하루 수백만 m^3씩 흐르는 이 물길의 물은 피현군, 룡천군, 염주군, 동림군, 철산군의 농장벌들과 대계도의 간석지벌을 비롯하여 수만정보의 농경지에 공급됨.
- 백마-철산물길을 통해 간석지벌 농사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됨. 염주청년간석지농장을 비롯하여 간석지논이 있는 농장벌들과 대계도 간석지의 포전들에 물이 넉넉히 보장됨으로써 소금기 피해 때문에 알곡소출을 더 높이지 못한다는 말이 없어짐.
- 백마-철산물길지역 일대에서는 큰물피해를 모르고 있으며 백마-철산물길은 빗물을 잡는 저류지 역할을 하고 있음.
- 황해북도에 미루벌물길이 생겨난 때로부터 3년 동안 수억 m^3의 관개용수가 미루벌에 흘러들었음. 미루벌 물길에 건설된 〈〈리상저수지〉〉의 물로 크고 작은 저수지, 저류지들이 채워지면서 미루벌의 농경지들을 적시고 있으며 공업용수, 생활용수로도 이용되고 있음.

6. 기타 작물

❑ 과수

○ 과일나무비배관리에서 혁신 창조 (로동신문 6.30)

- 일군들은 여러 영농공정들이 겹치는 조건에 맞게 비배관리를 잘하기 위하여 농약치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데 중심을 두고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나감.
- 승리분장, 사현분장, 부평지구 제2, 3, 4 작업반의 종업원들은 지난해보다 5회 농약치기를 한주일이나 앞당겨 끝낸 기세로 6회 농약치기를 마지막 단계에서 하고 있음.
- 부평지구 제12, 13작업반원들은 과일나무가지자르기에서 지켜야 할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정확히 알고 그날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함.

❑ 남새

○ 남새밭비배관리를 기술적 요구대로 (로동신문 6.13)

- 력포구역 류현남새전문협동농장의 남새작황이 좋음.
- 농장의 남새농장에서 특징적인 것은 씨뿌리기 방법을 지난해와 다르게 한 것임. 농장에서 일군들이 씨뿌리기 전에 종자를 철저히 선별하여 소독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소독제를 이용하니 싹트는 율이 높았음.
- 농장에서는 토양상태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남새의 생육조건을 좋게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원소들을 충분히 보충해줄 수 있는 거름원천들을 빠짐없이 확정하도록 하였음.
- 이와 함께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장만하기 위한 대책을 세움. 농장에서는 작업반, 분조, 농장원세대마다 퇴적장들을 만들고 여름에 베여들인 풀에 도시거름을 섞어 충분히 썩힌 후 다음해에 남새밭에 내도록 하였음. 그리하여 질좋은 거름을 많이 생산하여 포전에 실어낼 수 있었음.
- 비료의 효능을 더욱 높이기 위해 유기질복합비료와 흙보산비료를 골고루 섞어 밭갈이 전에 뿌리도록 하였음.
- 남새비배관리에서도 지난 시기와는 달리 비료를 주면서도 여러 가지 성장촉진제를 기술적요구대로 이용하게 하였음.

○ 남새온실 새로 건설 (로동신문 6.17)

- 혜산시의 련봉지구에 남새온실이 새로 세워짐.
- 고산지대의 특성에 맞게 건설된 온실들에는 많은 물거름을 생산하여 남새포전에 낼

수 있게 돼지우리와 큰단백풀서식장이 꾸려지고 자연수를 이용한 관수체계도 갖추어져 있어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음.

- 새로 건설된 온실마다 관리공들은 시민들에게 많은 남새를 공급하기 위해 여러 가지 남새작물에 대한 비배관리를 잘하고 있음.

7. 기타 보도 동향

❑ 비료, 거름

○ 비료시비에서 나서는 기술적 요구 (로동신문 6.23)

- 장마철에 예견되는 기상조건으로 보아 생육후반기비료인 조절비료, 이삭비료시비량과 그것을 주는 시기를 바로 정하고 논벼품종 및 지역적 특성에 맞게 조절비료시비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것은 논벼소출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됨.
- 조절비료시비에서는 비료주는 시기를 바로 정해야함. 다음으로 생육후반기비료가 확보된 조건에 맞게 조절비료와 이삭비료시비량을 바로 규정하고 심층 시비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함.
- 대용비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비료를 실정에 맞게 주는 것이 중요함.

❑ 현지지도

○ 고산과수농장을 현지지도 (로동신문 6.4)

- 김정은은 김격식, 최휘, 박태성, 박정천, 안지용과 함께 고산과수농장을 현지지도 함.
- 김정은은 고산과수농장에 과일을 농축하고 사과말린편을 생산하는 공장과 과일저장고, 쇠그물울타리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알아봄.
- 김정은은 과산과수농장에서 과일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계획대로 과수밭을 더 확장하고 과일묘목을 자체로 생산하며 농약시비를 비롯한 과일나무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함.
- 과수와 축산, 축산과 과수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세움으로써 과수밭에 유기질복합비료를 대대적으로 내어 지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

○ 보성버섯공장을 현지지도 (로동신문 6.6)

- 김정은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들인 김경옥, 최휘와 부부장들인 박태성, 황병서와 함께 보성버섯공장을 현지지도 함.
- 보성버섯공장은 연건축면적이 3,400여 m^2이고 18개의 재배호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산방법이 공업적이고 집약화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균생산공정을 비롯한 버섯

기르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충분히 갖춰진 북한에서 처음으로 건설된 현대적인 버섯생산기지임.

- 김정은은 균생산과 기질준비, 재배공정 등을 구체적으로 요해함.
- 김정은은 버섯재배에서 중요한 것은 균생산이며 기질생산에서는 멸균을 잘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말함.
- 밀폐식 재배장에 들린 김정은은 20℃아래의 온도에서 잘 자라고 정보당 수확량이 100여 톤이나 되는 느타리버섯을 비롯한 생산량이 많은 버섯을 재배해야 한다고 말했음.
- 김정은은 공장에서 균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하여 버섯생산기지들에 보내주는 것과 함께 공업적인 방법에 의한 버섯재배기술지도서를 잘 만들어 여러단위들에 보급해주어야 한다고 말함.

○ 평양기초식품공장을 현지지도 (로동신문 6.8)

- 김정은은 최룡해, 문경덕, 백계룡, 최휘, 박태성, 전창복과 함께 평양기초식품공장을 현지지도 함.
- 평양기초식품공장은 원료투입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들이 자동화되었으며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현대적인 기초식품생산기지임.
- 부지면적이 10만 2,000여 m^2이고 연건평이 6만 3,900여 m^2에 달하는 공장에서는 된장, 간장을 비롯한 갖가지 기초식품들을 생산하여 수도시민들에게 공급되고 있음.
- 김정은은 새로 꾸린 정제기름, 맛내기, 정제소금, 비타민E 생산공정과 포장공정을 돌아보면서 설비들의 특성과 능력을 알아봄.
- 김정은은 생산을 정상화하려면 해당 부문에서 원료를 무조건 보장해주는 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표들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함.

○ 창성식료공장을 현지지도 (로동신문 6.14)

- 김정은은 최룡해, 최휘, 박태성과 함께 개건현대화 된 창성식료공장을 현지지도 함.
- 김정은은 산열매들을 액화하여 저장할 수 있는 흐름식 공정들과 새로 설치한 성능높은 초림계 추출기를 보고 전처리공정의 기술개건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데 대하여 만족함.
- 김정은은 공장에서 생산한 술과 탄산단물, 졸임, 단묵(젤리), 간장, 된장 등을 보고 중앙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에 못지않다고 하면서 이 공장은 지방경제를 발전시켜 자체로 살아나갈 데 대한 당 방침의 정당성을 실증해주는 공장이라고 함.
- 또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황금산에서 나오는 산열매를 가공한 제품이라는 것

이 직관적으로 알릴 수 있게 〈〈황금산〉〉이라는 상표 도안도 더 잘 만들고 용기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함.

○ 안주시 송학협동농장 남새온실을 현지지도 (로동신문 6.20)

- 김정은은 최룡해, 박태성, 김영남과 함께 안주시 송학협동농장 남새온실을 현지지도했음.
- 안주시 송학협동농장은 부지면적 2,400m^2에 달하는 남새온실을 건설하고 배추, 부루(상추), 쑥갓, 고추, 오이, 토마토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남새작물들을 태양열을 이용하여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생산함으로써 농장원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하고 있음.
- 김정은은 남새온실에서는 해당한 면적에서 수확량을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지방의 기후풍토에 맞게 온실을 건설하고 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말함.
- 김정은은 온실에서 한해에 남새를 여러그루 재배하자면 유기질거름과 함께 화학비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농약, 비료, 종자를 국가적으로 보장해주는 사업체계를 세워주어야 한다고 말함.

○ 1116호농장에 건설한 버섯공장을 현지지도 (로동신문 7.16)

- 김정은이 1116호 농장에 건설한 버섯공장을 현지지도 하였음.
- 최룡해, 장정남, 전창복, 한광상, 김경옥, 황병서, 마원춘이 동행함.
- 버섯공장은 궁륭식재배장과 실내재배장으로 이루어졌음. 원료처리, 접종, 배양, 재배 등 생산방법이 공업적이고 집약화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버섯기르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음.
- 김정은은 균배양장을 돌아보며 버섯재배에서 중요한 것은 균생산이라고 하면서 공업적인 방법으로 균들을 길러내야 생산을 늘릴 수 있다고 말함.
- 김정은은 생산원가를 줄이면서도 작은 노력으로 버섯생산량을 늘리려면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생산면적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고 말함.

❑ 조류독감

○ 조류독감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로동신문 6.12)

- 남포수출입품검사검역소에서 최근 퍼지고 있는 조류독감의 전파를 막기위한 사업을 함.
- 주동철, 리창원동무들은 검사검역사업을 보다 신속정확히 과학기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사업을 함.
- 위생담당 책임검사검역원들은 지난 시기 싸스와 조류독감바이러스를 막기위한 노력에서 얻은 경험을 살리면서 검사검역사업을 진행함.

- 검사검역시 의심되는 대상이나 물건들에 한하여 빠른 시간안에 정확한 결론을 내리며 조류독감과 일반바이러스성 질병과의 차이점을 찾아내기 위해 진지한 협의회를 여는 과정에서 전염병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책이 세워짐.
- 조류독감을 전파시킬 수 있는 가금류들과 가공품들에 대한 검사검역사업이 보다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밖의 다른 질병들을 사전에 막기 위한 대책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음.

❑ 홍수

○ 큰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막자 (로동신문 6.23)

- 농업부문 일군과 근로자들은 곡식이 한포기라도 큰물과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함.
- 각지 농촌들에서는 논밭과 저수지, 물길, 강하천제방을 비롯하여 장마철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대상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해하고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함.
- 노력과 기계수단들을 동원하여 배수로들을 정리하며 큰물에 논두렁이 터지지 않게 잘 다져주어야 함.
- 밀, 보리, 감자 등 앞그루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함.
- 농촌들에서는 빗물이 고이는 곳들에 배수양수기를 배치하고 수리정비를 잘해놓아야 함. 양수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할 수 있게 예비부속품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전기시설도 완비하며 시운전도 미리해보는 등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함.
- 큰물예보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모래가마니, 삽, 질통 등을 준비해놓아야 하며 임의의 순간에 노력과 기계수단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